

#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원동 344-21 한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종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6년 4월 27일 수요일 (음 3월 21일) 제1548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26일 전주시내의 한 호텔에서 도 단위 유관기관·단체장 협의회인 '공심회' 창립총회가 열린 가운데 조봉성 전주매일 대표 등 참가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관련기사 2면>

## “현실 결여 보관시설기준에 폐업 위기”

### Focus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 조례 제정 공청회

26일 전북도의회 1층 회의실에서 열린 '전북도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 현장. 이날 건설폐기물업계 관계자들은 현실과 동떨어진 건설폐기물 보관시설 시설기준 때문에 문을 닫아야 될 위기에 처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시행령을 새로 마련하거나 지역 및 사업장여건을 감안한 조례를 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현재 주민거주 1km이내에 있는 건설폐기물 업체는 지난 2013년 12월 국회에서 개정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관시설 시설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이들 업체는 개정된 시설 기준에 따라 ▲높이 10m이상의 방진벽 ▲물을 뿌리는 시설 ▲방진덮개 설치 ▲바닥포장 ▲지붕덮개시설을 의무화해야만 한다. 이에 해당하는 도내 건설폐기물업체는 전체 55개사 가운데 13개사다. 세부적으로는 전주 6개, 군산 3개, 익산 1개, 김제 2개, 부안 1개 등이다. 업계는 이번 시설 기준과 관련, 받아들인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현실성이 없는 기준에 대해서는 우려를 제기했다. 바닥포장의 경우 그동안 쌓아둔 폐기물들을 옮겨 포장해야 되지만 비좁

업계 “시행령 새로 마련 사업장 여건 감안해야 바닥포장은 법 기준 맞게 처리하면 회사경영에 압박”

은 현장에서 이전 포장이 현실상 어렵고 법에 맞게 처리하지나 인근 토지매입등 회사경영에 압박이 온다는 주장이다. 또 바닥포장이유가 토양 오염 방지 때문이라고 하지만 오히려 비산먼지, 소음에 관한 사항이 더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방진벽 역시 10m로 쌓을 경우 바람 등에 무너질수 있다는 문제점을 제기했다. 특히 한 부지에서 10여년이 넘게 운

영해 온 상황에서 주민거주 1km 이내 시설기준을 새로 적용하라는 것은 괴리가 있다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바닥포장한 업체는 전국적으로 한군데도 없다. 위안을 삼는 것은 전북도가 이러한 상황을 감안, 지난 2015년 12월 일률적인 규제 완화를 위한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조례가 제정되면 지역건설폐기물업체의 숨통 역시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어 그는 “조례안을 들여다보면 침출수 발생우려가 있는 건설오니는 바닥포장과 지붕덮개 설비가 갖춰진 보관시설을 따로 설치 보관토록 했다. 또한 바닥포장, 지붕덮개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고 매년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도록 했다"면서 “분진과 소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광경 기자

### 社告

#### 제3회 전주한옥마을 품바왕 명인전

품바는 우리나라 전통사회에서 서민들의 진솔한 삶을 담은 풍자요 해학이었습니다. 또한 시대의 흐름에 따라 삶의 회로에락, 정치·사회문제 등에 대한 신랄한 풍자로 시대상을 반영하기도 했습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하나의 전통예술로 자리매김 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본사는 이를 더욱 발전시키고자 전국의 품바 명인들을 초청하여 전통문화예술의 중심지인 전주에서 제3회 전국 품바왕 명인전을 열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 음>

- 일시 : 2016년 5월 13일(금) 오후 2시
- 장소 : 전주 풍남관광객 특설무대
- 주최 : (사)전북다문화진흥원
- 문의처 : 063)288-9700, 전주매일신문 문화사업국



## 내달 6일 임시공휴일 지정... 4일 쉰다

### 청와대 “내일 국무회의 의결”

청와대가 다음달 6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26일 모 언론사와의 통화에서 “대한상회의 건의가 올라와 5월 6일 임시공휴일 지정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오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한상회의는 내수경기 회복을 위해 5월6일을 공휴일로 지정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5월 6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어린이날인 5일부터 주말인 8일까지 나흘간 연휴가 생겨 소비촉진과 내수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청와대도 대한상회의의 이같은 건의에 적극 공감하는 분위기다. 경기 침체로 우

울해진 사회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내수진작을 꾀할 수 있는 점 때문이다. 임시 공휴일 지정에 따라 소비가 늘어나면 기업들의 이익도 늘어나고 그만큼의 고용 촉진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는다. 이와 관련해 일부 조사기관은 지난해 8월 14일 임시 공휴일 지정의 내수진작효과가 1조3,1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관광·음식·숙박과 백화점 등 유통업계도 상당한 매출 증대 효과를 거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에도 광복 70주년 축하 분위기 조성과 내수진작을 위해 광복절 전날인 8월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바 있다. 당시 임시 공휴일 지정 직후 일부 여론조사기관 조사에서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5%포인트 가까이 상승하기도 했다. 청와대에서는 이번 임시 공휴일 지정을 통해 지난해와 같은 지지율 반전 효과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엿보인다. /이성주 기자

### 단풍미인쇼핑몰

가정의 달 기념 5월 한달 내내 펼쳐지는

## 55 릴레이 페스티벌

오월 한달 내내 **경쟁, 내공, 외성**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 5: 단풍미인 쇼핑몰 오픈 5주년
- 5: 5월 가정의 달
- 5: 5번의 기념일에 감사의 건강꾸러미를 드립니다.

전국 어느 곳이나 **우체국 택배**로 **모든제품 100% 무료배송** **주문예약**

네이버에서 단풍미인쇼핑몰을 검색해 보세요

단풍미인쇼핑몰 http://www.danpoongmall.com

고객만족전화 080-535-4345 / 063-532-4345

#### 5월 1일 근로자의 날 응원합니다.

첫번째 릴레이: 근로자의 날을 위한 꾸러미로 주는 분, 받는 분 모두가 만족스러운 건강꾸러미입니다.

예약일 4월 26일(화)까지 발송일 4월 27일(수)

#### 5월 5일 어린이날 행복하거라.

두번째 릴레이: 어린이 날을 위한 꾸러미로 외갓집 외할머니의 정성이 그대로 전달됩니다.

예약일 5월 2일(월)까지 발송일 5월 3일(화)

#### 5월 8일 어버이날 감사합니다.

세번째 릴레이: 부모님을 위해 최적화된 건강꾸러미로 자녀의 마음이 그대로 전달되는 최상의 꾸러미입니다.

예약일 5월 2일(월)까지 발송일 5월 3일(화)

#### 5월 15일 스승의날 존경합니다.

네번째 릴레이: 드리는 분의 정성이 그대로 전달되도록 정성껏 준비한 품위있는 꾸러미입니다.

예약일 5월 10일(화)까지 발송일 5월 11일(수)

#### 5월 21일 부부의날 사랑합니다.

예약일 5월 18일(수)까지 발송일 5월 19일(목)

#### 마지막 릴레이

부부의 사랑을 표현하며 건강까지 챙길 수 있도록 구성된 의미있는 꾸러미입니다.